

전동평 영암군수, 지역현안 사업 박양우 장관과 논의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 · 마한문화공원 조성 건의 · 축제 발전 논의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7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영암군의 문화관광·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건의 및 논의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 ▲마한문화공원 '마한촌' 건립에 관한 내용이며, 영암왕인 문화축제 성과 및 발전 방향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씨름중흥을 위한 정부정책에 선 제 대응하면서 씨름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해 영암군만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 매력적인 관광 명소이자 씨름 수련의 메카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씨름 교육의 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씨름경기장, 역사관, 트레이닝센터, 숙소,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한문화공원 '마한촌' 건립사업 관련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중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기 조성된 영암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올해 4월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마한역사문화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다. 또한 영암왕인 문화축제에 관해서는 전통문화 보존 계승으로 가장 한국적인 축제문화를 정착 시키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하였으며 인물축제의 정체성이 뚜렷한 명품 프로그램으로서 차별성을 강화시킨 주요 명소이자 씨름 수련의 메카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씨름 교육의 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씨름경기장, 역사관, 트레이닝센터, 숙소,

영암=조대호 기자

제13회 진도 대한민국 고수대회 개최

제13회 진도 대한민국 고수대회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동안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예선과 본선으로 이루어진 이번 제13회 진도 대한민국 고수대회는 전국단위 경연대회로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고법 5개 부문(명고부, 일반부, 신인부, 노장부, 학생부)으로 나누어 경연을 치르며, 신예국악인 경연, 축하공연, 경품행사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되어 있

다. 진도 대한민국 고수대회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59회 관소리 고법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진도군 출신 고법 명인 감독수 선생을 기리고, 전통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신예 국악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상자는 진도군에서 주최하는 진도토요민속여행,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공연행사에 특별출연의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열리는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수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 전남도지사, 전남도교육감, 진도군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등이며 총 시상금은 1,500여만원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ASC 인증 확대 위한 교육 실시

완도군은 지난 1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와 ASC-MS를 희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14개의 전복 어가에서 ASC 국제 인증을 받는데 이어 전복 ASC 및 해조류 ASC-MS 확대 인증을 추진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10월 1일 금당면과 10

월 7일 약산면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어촌계 조합원이 참석하는데 ASC 인증 국내·MSC를 희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증 심사 기준에 대한 질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ASC, ASC-MS 인증은 신뢰받는 국제 인증인 만큼 심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고 심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군에서는 효율적인 진행

을 위해 현장 교육을 진행하였고, 특히 인증 추진 시 비용 및 기록유지에 관한 측면 등 준비 등에 대해 질의를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되는 2021년까지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10% 이상을 ASC, ASC-MS 인증 획득을 목표로 인증교육 추진 및 심사를 진행 할 계획이며, 국제 인증으로 경쟁력 갖춰진 수산물을 확보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성군, '노란꽃 잔치 꽃강 걷기 대회' 개최

장성군은 12일 오전 9시, 노란꽃잔치의 주무대가 마련된 황룡강 일원 공설운동장에서 '노란꽃 잔치 꽃강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걷기대회가 시작된다.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제2황룡교와 황룡행복마을, 신축공설운동장을 돌아 개천인도교를 건너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다. 완주하기까지 1시간 가량 소요되며, 완주 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장성=박종영 기자

함평군 음식관광 네트워크 용역 보고회



함평군은 8일 함평군을 대표하

는 먹거리와 고객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음식스토리를 개발하고 지역의 명소를 결합한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제시를 위한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로부터 지원 조사 및 환경분석을 실시 증강보

고회를 거치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두레싱크푸드 김은경 대표로부터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함평군의 지역자원인 엽식질을 토대로 들밥 컨셉으로 중장기적 발전 비전수립, 실천적이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음식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과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강진군,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 위한 국제 워크숍



강진군이 세계적인 도자사 석학들을 초청하여 최고의 고려청자 생산 유적이라 할 수 있는 강진 사당리 요지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7일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강진군이 주최하고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제47회 강진청자축제의 기획행사로 추진되었다.

중국·일본·대한의 세계적인 도자 연구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 발굴 중

인 강진 사당리 요지를 참관하고, 새롭게 발굴된 유물들을 살펴본 후 고려청자요지의 성격규명과 우수성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마지막 행사로 연구자들이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기원문을 강진청자 등재에 활용하고 영구보관하기로 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주요 참여 연구자들은 절강대학 주소화 교수를 비롯해 절강성문물

고고연구소 사서영, 두정현 항주 박물관장 등 21명의 중국 도자사 연구자들과 사명량 국립대만대학교 교수, 여패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처장 등 5명의 대만 도자사 연구자들, 타시료 유이치로 고지마미 술관 연구원, 야마구치 히로유키 동북학원대학교 연구원 등 5명의 일본 도자사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소화 절강대학 교수는 "세계 최고의 고려청자를 생산했던 장소에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발굴과정을 참관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에 새롭게 발굴된 고려청자 특수기와와 대형 고려청자매병, 그리고 많은 청자편들을 보면서 고려청자의 분향의 자존심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가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